

## 한은, '통화정책 경제대회' 전국 결선 개최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서울 중구 부영대평빌딩에서 '2019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 결선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각 지역 예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7개 팀이 참가한다.

각 팀은 다음 통화정책 결정에 고려해야 할 이슈 한 가지를 설명하고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을 토대로 정책구리를 결정하는 과정을 경연할 예정이다.



결선 진출팀 전원에게는 총재 명의의 표창과 포상금이 수여된다. 금상과 은상 각 1개팀, 동상 2개팀, 장려상 3개팀이 뽑힌다. /김희주기자 hj89@



**신복위 '새 희망 힐링펀드 장학증서 수여식' 열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19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소속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175명을 선발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동아오츠카, 11년째 '이온데이' 봉사활동**  
동아오츠카는 2009년부터 매월 25일을 '사랑의 이온데이'로 지정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온데이는 자사 대표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에서 이름을 가져와 매월 25일을 봉사의 날로 지정해 정기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동아오츠카의 사회 공헌 활동 중 하나다. 최근에는 봉사 임직원들이 직접 빵, 국수 등을 만들어 지역 사회단체, 요양원 등에 기부하며 '사랑의 이온데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동아오츠카

## CJ대한통운, 365일 24시간 '택배서비스'

CJ대한통운이 365일, 24시간 접수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를 업계 처음으로 시작했다.

CJ대한통운은 대학교, 아파트, 관공서 등 전국에 설치된 무인락커를 기반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택배를 접수·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CJ대한통운 택배 앱(APP)에서 상품접수, 무인택배함 검색, 결제까지 전 과정을 윈스탑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교, 편의점 등에서 '스마일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코리아를 비롯해 아파트 무인락커 전문업체 헤드, 무인락커 임대 전문업체 새누 등과 손잡았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고객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고 택배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력 높은 무인락커 중소기업들과 제휴해 전국 300여 지역에 접수, 발송 기능이 더해진 무인택배함 1000대도 오픈했다. 기존에 설치



택배 이용 고객이 대학교 기숙사에 설치된 무인락커를 통해 택배 상품을 접수, 발송하고 있다.

된 무인락커를 새 모델로 대체하지 않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만으로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이를 통해 발송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전국의 무인함 스타트업, 중소기업체들과 제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기존에 무인택배함이 설치된 관공서, 아파트, 주택 단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어 주민 안전,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주주가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Q. 상법에서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라면 언제든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주주총회 소집권자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와의 관련이라면 대표이사를 해임 결의할 것이 분명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리 없다.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위법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까?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전원출석주주총회의 경우, 이사회 소집결정이 없지만 주주 전원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다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유효하다. 주주 전원이 모이지 않았더라도 전원이 총회를 여는 데에 사전에 동의하고 총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총회를 개최한다면, 그 총회에서 위법행위를 한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1인 주주가 전부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1인 주주의 뜻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면 유효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판례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당연히 그 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판례는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단될 것이다.

한편, 1인 주주가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데, 공증인인 1인 회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인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상법은 일정 주식비율을 소유한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인정한다.

위 주식비율 상당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 청구를 받은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소집을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다면 공증인 역시 1인 회사의 주주가 작성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신뢰하여 공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차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방법 일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 LH, 베트남에 한국형 산단·주택 건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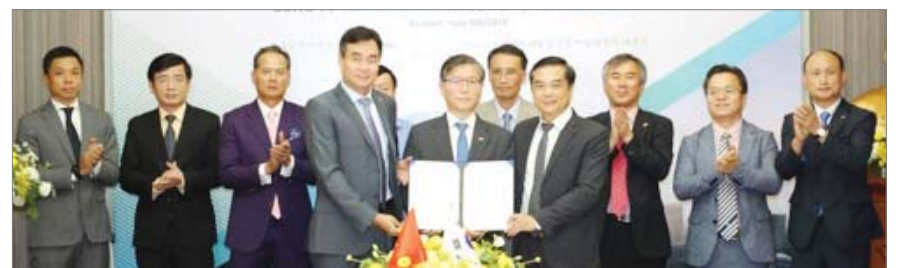
### 현지사와 흥이엔성 경제협력 산단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 등 협의각서

한국도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에 한국형 첨단 산업단지과 주택 건설을 지원한다.

LH는 9일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부동산 개발회사 에코파크의 자회사 T HD 에코랜드와 흥이엔성 경제협력 산업단지 예비 시행약정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흥이엔성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남동쪽으로 30km 떨어진 흥이엔성 리트엡켓 산업도시내 1.4㎢(약 140ha) 부지에 건설되는 산단으로 추정 사업비가 720억원이다.

LH는 이 산단에 첨단통신 네트워크 설비 등 한국형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입주 기업의 공장설립 등 인허가와 각종 금융·법률·세제 상



지난 9일 베트남에서 열린 흥이엔성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예비시행약정' 및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 '사업협력 MOA' 체결식에서 변창훈 LH 사장(앞줄 가운데), 응우옌 쑹 흥 에코파크 부사장(앞줄 왼쪽), 부이 띠엔 흥 에코플레이스 사장(앞줄 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H

담 등을 일괄 지원하는 윈스탑 서비스센터를 도입해 한국형 산단 보급에 나선다.

LH는 이 산단을 통해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이날 베트남 에코파크, TDH 에코플레이스사와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 사업협력 협의각서도 체결했다.

코비 사회주택 건설 사업은 2017년 베트남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도시·주택건설 패키지 사업으로, 하노이 시 자람현 60만㎡ 부지에 3200억원을 들여 건설될 예정이다.

LH는 코비 사회주택 건설에 한국형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과 건설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김건
- ◆환경부 ◇국장급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정섭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박은추
- ◆금융위원회 ◇국장급 전보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박광(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기업인재 양성본부장 박경자 ◇실장 △기획조정실장 엄윤상 ◇팀장 △홍보팀장 변미영 △기획조정실 혁신소통팀장 성임경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팀장 장광진 △기업인재양성본부 창업지원팀장 박인남
- ◆현대상선 ◇전보 △구주본부장 김정범 전무 △미주본부장 이정엽 상무 △독일법인장 김경섭 상무 △동서남아본부장 오동환 상무 ◇선임 △변화관리지원원(CTO) 최

### 종화 상무

### 부음

▲유혁경 씨 별세, 이혜영·인용(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씨 모친상, 박상기(법무법인 화우 고문·전 제네바 대사) 씨 장모상 = 11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12일 19호실 이동), 발인 13일 오전 6시 45분, 장지 강원도 문막 온누리총효공원. 02-3410-6903